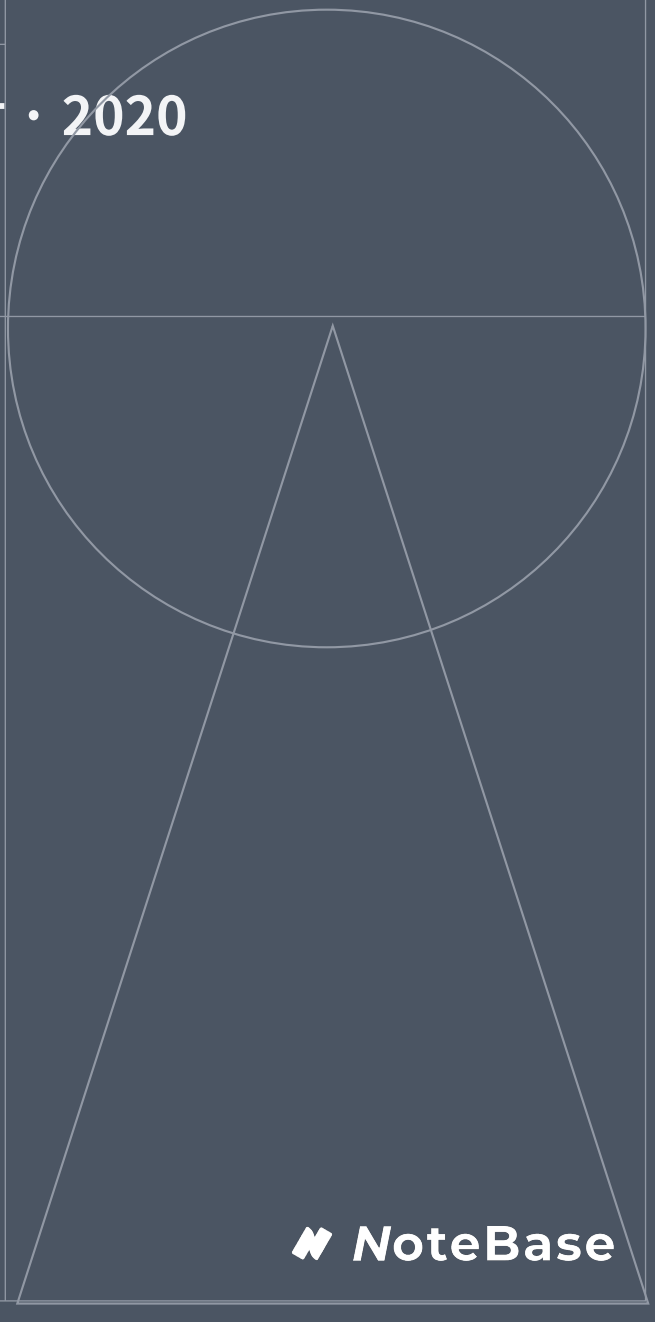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20

문 1. 조경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시설 중 직접가설시설이 아닌 것은?

① 울타리
② 규준틀
③ 비계
④ 동바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공사 가설시설을 직접가설시설과 간접가설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직접가설시설은 규준틀, 비계, 동바리처럼 본 공정을 수행하는 데 바로 쓰이는 시설이다.
간접가설시설은 울타리처럼 현장 전체의 구획, 보호, 관리 기능을 맡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울타리는 공사장을 구획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므로 현장 관리용 간접가설시설이다. 따라서 직접가설시설이 아닌 것을 묻는 발문에 맞다.
2번 X: 규준틀은 위치, 높이, 치수를 정확히 잡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본 시공에 직접 쓰이는 직접가설시설이다. 올바르게는 '규준틀은 직접가설시설이다.'이다.
3번 X: 비계는 작업발판과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이므로 시공 작업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가설시설이다. 올바르게는 '비계는 직접가설시설이다.'이다.
4번 X: 동바리는 거푸집이나 구조 부재를 임시로 지지하는 시설이므로 본 공정 수행에 직접 필요한 직접가설시설이다. 올바르게는 '동바리는 직접가설시설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울타리도 공사 현장에 설치되므로 가설시설이라는 점만 보고 직접가설시설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구분 기준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본 공정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시설인지, 현장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설인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특정 작업의 시공, 지지, 기준 설정에 바로 쓰이면 직접가설시설로 본다. 반대로 현장 경계, 출입 통제, 관리처럼 공사 전반을 지원하면 간접가설시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규준틀·비계·동바리는 직접, 울타리는 간접이다.

NoteBase

문 2. 인공지반의 식재설계 시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공지반은 건조, 바람, 수분부족 등 환경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② 식재기반은 잔디초화류 15cm, 소관목 30cm, 교목 45cm 이상의 토심확보가 필요하다.

③ 식재기반을 위한 생육 토심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배수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배수 및 자동관수시설의 설치, 하중문제를 고려한 경량 토양 확보 등이 필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공지반 식재설계의 기본 고려사항과 식재 종류별 최소 토심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공지반 식재설계는 불투수 구조물 위에서 식물이 자라도록 토심, 배수, 관수, 하중을 함께 조정하는 설계이다. 식재토심은 식물 뿌리가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흙의 깊이이며, 초화류보다 관목, 관목보다 교목으로 갈수록 더 깊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공지반은 자연지반보다 건조, 바람, 수분 부족, 복사열 등에 더 취약하므로 환경압을 고려한 식재설계가 필요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목 45cm 이상"이다.
올바르게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cm 이상, 소관목 30cm 이상, 대관목 45cm 이상, 교목 70c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③ O: 식재기반에는 뿌리가 자랄 생육 토심이 필요하고, 과습을 막기 위한 배수층도 함께 확보되어야 정상 생육이 가능하다.
④ O: 인공지반은 구조물 위에 조성되므로 배수시설과 관수시설이 중요하고, 구조 하중을 줄이기 위한 경량 토양 확보도 타당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초화류 15cm, 소관목 30cm, 대관목 45cm라는 숫자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를 그대로 교목에 붙인 것이 함정이다. 교목은 관목보다 훨씬 깊은 토심이 필요하므로 45cm로 축소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공지반 식재 문제는 먼저 환경조건, 배수·관수, 하중 고려를 맞는 기준으로 본다. 그다음 토심 수치가 나오면 초화류 < 소관목 < 대관목 < 교목 순으로 깊어진다는 축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공지반은 건조·하중·배수를 함께 본다. 토심은 15-30-45-70의 증가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3. 소나무속 수종과 잎의 형태를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Pinus pumila - 이출엽

② Pinus bungeana - 삼출엽

③ Pinus rigida - 오출엽

④ Pinus strobus - 이출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나무속 수종별 엽속 수, 즉 한 다발에 붙는 잎 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나무류는 수종마다 한 엽속에 달리는 잎 수가 비교적 일정하므로 이를 이용해 구분한다.
Pinus bungeana는 백송으로 삼출엽이다.
Pinus pumila와 Pinus strobus는 잣나무류에 가까워 오출엽이다.
Pinus rigida는 리기다소나무로 보통 삼출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Pinus pumila - 이출엽"이다. Pinus pumila는 눈잣나무로 한 엽속에 잎이 5개 달리는 오출엽이다. 올바르게는 "Pinus pumila - 오출엽"이다.
② O: Pinus bungeana는 백송으로 한 엽속에 잎이 3개 달리는 삼출엽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오출엽"이다. Pinus rigida는 리기다소나무로 보통 삼출엽이다. 올바르게는 "Pinus rigida - 삼출엽"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출엽"이다. Pinus strobus는 스트로브잣나무로 오출엽이다. 올바르게는 "Pinus strobus - 오출엽"이다.

오답 포인트

눈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처럼 이름에 "잣나무"가 들어가는 수종을 일반 이출엽 소나무처럼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백송과 리기다소나무를 함께 섞어 두어 삼출엽과 오출엽을 바꿔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잣나무류인지 아닌지를 본다. 잣나무류는 오출엽으로 정리되고, 백송과 리기다소나무는 삼출엽으로 판단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잣나무류는 오출엽, 백송·리기다는 삼출엽이다.

NoteBase

문 4. 저온에 의한 조경수 해(害)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해(旱害)

② 만상(晩霜)

③ 조상(早霜)

④ 동해(凍害)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의 저온 피해와 비저온 피해를 구분하는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온해는 서리나 동결처럼 낮은 온도로 생기는 피해이다.
한해(旱害)는 토양 수분 부족과 건조로 생기는 가뭄 피해이다.
만상(晩霜)은 봄철 생육이 시작된 뒤 늦서리로 새순이나 꽃눈이 상하는 피해이다.
조상(早霜)은 가을철 이른서리로 아직 충분히 경화되지 않은 조직이 상하는 피해이다.
동해(凍害)는 겨울철 저온과 동결로 줄기, 가지, 뿌리 등이 직접 상하는 피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한해(旱害)는 저온 피해가 아니라 가뭄 피해이다. 틀린 부분은 저온에 의한 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한해는 수분 부족과 건조에 의한 피해이다.
② O: 만상(晩霜)은 늦서리로 인한 피해이므로 대표적인 저온해이다. 봄철 새순과 꽃이 나온 뒤 서리를 맞아 피해가 커지기 쉽다.
③ O: 조상(早霜)은 이른서리로 인한 피해이므로 저온해에 해당한다. 가을철 조직이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생긴다.
④ O: 동해(凍害)는 겨울철 낮은 온도와 동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이므로 저온해가 맞다. 수피 갈라짐, 가지 마름, 뿌리 피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한해의 한자를 旱이 아니라 추위를 뜻하는 글자로 막연히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피해 원인을 기준으로 묶어야 하며, 霜은 서리, 凍는 동결, 旱은 가뭄이라는 차이를 잡으면 정리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수 피해 문제는 먼저 원인 축을 본다. 서리나 동결처럼 낮은 온도가 직접 원인이면 저온해이고, 건조와 수분 부족이 원인이면 한해로 구분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露은 가뭄, 霜은 서리, 凍는 동결이므로 저온해는 만상·조상·동해이고 한해는 제외된다.

NoteBase

문 5. 조경계획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동선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행량이 많을수록 막다른 길을 활용하여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

② 같은 교통수단은 같은 위계의 동선을 가져야 한다.

③ 시설물이나 행위의 종류가 많을수록 동선도 최대한 다양하게 적용한다.

④ 공원과 같이 모임과 분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위계형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의 동선체계에서 위계형 적용 원칙과 동선 분리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위계형 동선은 주동선, 보조동선, 국부동선처럼 중요도와 통행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한 체계이다. 같은 교통수단이라도 기능과 통행량이 다르면 위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설과 행위가 많아도 동선은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분리하고 전체 체계는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통행량이 많을수록 막다른 길을 활용'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막다른 길은 회귀와 분산이 어려워 통행량이 많은 곳의 기본 동선으로 부적절하다. 통행량이 많을수록 연결성과 분산이 가능한 주동선이나 위계화된 동선체계가 필요하다.
2번: X. '같은 교통수단은 같은 위계'라는 표현이 틀리다. 같은 보행 동선이나 같은 차량 동선 안에서도 주동선과 보조동선처럼 기능과 통행량에 따라 위계가 달라진다.
3번: X. '종류가 많을수록 동선도 최대한 다양하게'라는 표현이 틀리다. 시설과 행위가 많을수록 필요한 분리와 연결은 분명해야 하지만, 동선을 과도하게 다양화하면 체계가 복잡해져 이용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명확한 체계와 선택 기준을 갖춘 위계적 구성이 적절하다.
4번: O. 공원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여러 시설로 분산되는 공간은 주출입부, 중심공간, 세부시설로 이어지는 위계형 동선이 적합하다. 위계형은 집산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방향성을 분명하게 만든다.

오답 포인트

위계형을 '교통수단별로 모두 같은 단계의 동선을 쓰는 방식'이나 '동선 수를 많이 두는 방식'으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동선의 개수보다 통행량, 기능, 집산 구조에 맞게 단계를 나누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선 문제가 나오면 먼저 통행의 집중과 분산이 큰 공간인지 본다. 그다음 주동선과 보조동선을 나눌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집산이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면 위계형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위계형은 통행량과 기능에 따라 단계화하고, 막다른 길은 저통행 보조공간에 가깝다.

NoteBase

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의 세분, 설치 및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1천미터 이하이고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②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이 있다.

③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국가도시공원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지정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분류와 시행규칙 별표 3의 설치·규모 기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세분되는 공원이다.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역사·문화·수변·체육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이다.

핵심 구분

도보권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 포함되고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에 속한다.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도보권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를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도보권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② X
문화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만 구성된다.
틀린 표현: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이 있다."
올바른 표현: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이다."

③ X
시행규칙은 도시공원이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2면 이상은 숫자를 낮춰 바꾼 오답이다.
틀린 표현: "원칙적으로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④ X
국가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공원이 아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정한다.
틀린 표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지정한다."
올바른 표현: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며 지정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공원의 분류표와 설치기준 숫자, 그리고 지정·설치·입안 주체를 한꺼번에 섞어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②는 문화공원을 생활권공원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③은 3면 기준을 2면으로 낮춰 숫자 함정을 만들며, ④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원조성계획 입안권한을 국가도시공원 지정권한으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법령 선지는 먼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분류를 나누고, 다음으로 별표 3의 유치거리·규모 숫자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지정·설치·입안·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리해서 보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생활권은 소·어·근, 문화는 주제, 접도는 3면, 도보권근린은 1천미터·3만제곱미터이다.

NoteBase

문 7.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구상단계는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될 최종안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단계이다.

② 보다 바람직한 안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개략안을 작성하는데 이를 대안작성이라고 한다.

③ 기본설계에서는 공간의 배치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이므로 정확한 축척(scale)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④ SWOT분석은 기본계획단계에서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현황분석, 기본구상, 대안작성, 기본설계의 역할과 SWOT분석의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구상은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의 방향과 개념을 잡는 단계이고, 대안작성은 그 방향에 따라 여러 개의 개략안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기본설계는 공간의 배치와 규모를 구체화하여 도면화하는 단계이고, SWOT분석은 대상지의 내부 강점·약점과 외부 기회·위협을 종합하는 분석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본구상단계는 현황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의 큰 방향과 개략적 개념을 제시하는 단계이므로 옳다.
② O. 여러 개의 개략안을 만들어 비교하면서 더 적절한 안을 찾는 과정이 대안작성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O. 기본설계는 공간 배치와 규모가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실제 치수와 비례를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축척의 도면 작성이 이루어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기본계획단계에서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SWOT분석은 기본계획 단계의 대안 제시기법이라기보다 현황조사·분석 단계에서 대상지의 내부 강점·약점과 외부 기회·위협을 종합 파악하는 분석 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SWOT를 단순히 '장단점 분석'으로만 축소하고 이를 기본계획단계의 대안 작성 기법처럼 묶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SWOT는 강점·약점뿐 아니라 기회·위협까지 함께 보는 분석 도구이며, 계획안 작성 이전의 분석 정리 성격이 강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계획 문제에서 특정 기법이 나오면 먼저 그것이 분석 도구인지, 구상 단계의 방향 설정인지, 계획안 비교 단계인지, 설계 도면 구체화 단계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SWOT처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기법은 계획안 작성 단계보다 분석 단계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SWOT는 분석 도구이고, 대안작성은 여러 안 비교이며, 기본설계는 배치와 규모의 구체화 단계이다.

NoteBase

문 8.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단지 설계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간을 공적(public)·반공적(semi-public)·사적(private) 공간으로 체계를 확립한다.

② 주민의 단지에 대한 소유감을 높인다.

③ 반공적 공간이 주민들에 의해 보다 소극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④ 공공주택의 인상을 줄이고, 주변의 개인주택과 외관상 조화되도록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뉴먼의 방어공간 개념에서 공적·반공적·사적 공간의 구분, 주민의 소유감, 단지 이미지 관리가 범죄예방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방어공간은 주민이 자기 공간이라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직하는 개념이다.
공적 공간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고, 반공적 공간은 특정 주민 집단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상호 감시가 가능한 공간이며, 사적 공간은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이다.
핵심은 공간의 이용 방식과 경계 구분이 주민의 소유감과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부공간을 공적(public)·반공적(semi-public)·사적(private) 공간으로 위계화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방어공간 설계의 기본이다.
② O: 주민의 단지에 대한 소유감과 책임감을 높여 외부인의 침입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방어공간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보다 소극적으로 이용되도록'이다. 반공적 공간은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감시성이 높아진다. 올바르게는 '반공적 공간이 주민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이다.
④ O: 공공주택의 낙인효과를 줄이고 주변 개인주택과 외관상 조화되게 하는 것은 단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해 범죄 취약성을 낮추려는 이미지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반공적 공간'이라는 용어보다 '소극적으로'라는 한 단어가 함정이다. 방어공간은 주민의 사용과 감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므로, 이용을 위축시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어공간이나 CPTED 관련 선지는 주민의 소유감, 공간 경계의 명확화, 자연적 감시, 이미지 개선을 강화하면 옳고, 주민 이용과 감시를 약화시키면 틀리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방어공간은 공적-반공적-사적 위계를 세우고, 반공적 공간은 더 적극적으로 쓰이게 하며, 소유감과 감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

NoteBase

문 9. 조경공사에 집행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적용되는 설계도서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현장설명서 - 표준시방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② 현장설명서 - 표준시방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③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④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공사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 어떤 문서를 먼저 적용하는지를 묻는 절차·순서형 문항이다.

올바른 순서

1. 현장설명서 - 입찰 및 현장 조건, 발주자의 설명 사항을 가장 우선해서 반영하는 문서이다.
2. 공사시방서 - 해당 공사에 맞게 작성된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므로 일반 기준보다 우선한다.
3. 설계도면 - 구조, 형상, 치수, 배치 등을 직접 나타내는 도서이다.
4. 표준시방서 -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바탕이 되는 일반적·공통적 시공 기준이다.
5. 물량내역서 - 수량과 공종 내역을 정리한 자료이므로 해석 우선순위는 가장 낮다.

왜 이 순서인가: 개별 현장과 해당 공사에 직접 맞춘 문서가 공통 기준보다 우선하고,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의 기반이 되는 일반 기준이므로 뒤에 놓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장설명서를 가장 앞에 둔 점은 맞지만, 표준시방서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표준시방서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맞춘 개별 기준이므로 공사시방서가 우선한다. 또한 설계도면도 표준시방서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이다.

② X
표준시방서를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의 기초가 되는 일반 기준일 뿐 해당 공사에 대한 직접 지시 문서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이다.

③ X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의 앞 순서는 맞지만, 표준시방서를 설계도면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설계도면은 해당 공사의 구체적 형상과 치수를 직접 나타내므로 일반 기준인 표준시방서보다 우선한다. 올바르게는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이다.

④ O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의 배열이 맞다. 현장설명서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해당 공사에 맞춘 공사시방서, 이어서 설계도면, 그 다음 공통 기준인 표준시방서, 마지막이 물량내역서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표준'이라는 표현 때문에 표준시방서가 가장 강한 기준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표준시방서는 공통 기준이고, 실제 우선하는 것은 현장설명서와 해당 공사에 직접 작성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계도서 우선순위 문제는 문서의 구체성과 현장 직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장설명서처럼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문서가 가장 앞서고, 개별 공사를 위해 작성된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이 그다음이며, 공통 기준인 표준시방서와 수량 정리 자료인 물량내역서는 뒤로 놓인다.

암기 포인트

현-공-도-표-물 순서로 기억하면 된다.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물량내역서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0. 조경공사비 산정방법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사비 구성 항목에서 순 공사원가(순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금, 지급자재로 구성된다.

② 조경공사비 산정은 대부분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총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다.

④ 총 공사비는 순 공사원가(순 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서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총공사원가, 총공사비의 구성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공사원가(순공사비)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데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이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와 관리활동에 드는 간접비이고, 이윤은 시공자의 영업이익이다. 원가계산 체계는 세 단계로 정리되는데, 먼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합한 것이 순공사원가이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것이 총공사원가이며, 총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것이 총공사비이다. 조경공사비는 현장과 재료 조건이 다양하여 이처럼 항목을 단계적으로 합산하는 원가계산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원문 선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금, 지급자재로 구성된다"인데, 순공사원가의 기본 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다. 세금은 순공사원가의 구성항목이 아니며, 지급자재도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자재이므로 순공사원가를 이루는 기본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②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의 원가계산 방식과 표준품셈에 따라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공사비를 정하는데, 조경공사는 현장 조건·식재 재료·시설물·시공 공정이 다양하여 이 원가계산 방식이 주로 쓰인다. 따라서 조경공사비 산정은 대체로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총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다"이다. 원가계산 체계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총공사원가를 구성하므로, 일반관리비는 총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 아니라 총공사원가를 이루는 구성항목이다. 올바르게는 "일반관리비는 순공사원가에 가산되어 총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포함된다"가 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총 공사비는 순 공사원가(순 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이다.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것은 총공사비가 아니라 총공사원가이다. 총공사비는 총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 단계이므로, 선지가 총공사원가의 구성을 총공사비의 구성으로 바꿔 놓아 틀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순공사원가와 총공사원가, 총공사비를 같은 말처럼 섞어 버리면 ③과 ④를 헷갈리기 쉽다. 특히 ④는 총공사원가의 구성을 총공사비의 구성으로 바꿔 놓은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직접공사 항목인지 확인하면 순공사원가를 잡을 수 있다. 그다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붙으면 총공사원가로 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단계가 총공사비라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총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총공사비 = 총공사원가 + 부가가치세 등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1. 병해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해충의 제거, 중간기주의 제거, 상처의 소독, 비배관리, 전염원의 제거는 물리적 방제이다.

②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화학적 방제인데, 대량으로 하기 어렵고, 소규모로 유효하다.

③ 생물의 먹이사슬에서 해충을 먹이로 하는 조류, 포유류, 곤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천적에 의한 방제이다.

④ 단순림보다는 가급적 여러 수종을 식재하여 식물들의 잔존력을 높이는 방향이 병해충 예방에 적절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병해충 관리 방법을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예방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리적 방제는 병해충이나 전염원을 직접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관리이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약제를 이용해 병해충을 억제하는 관리이다.
생물적 방제는 천적이나 생물 간 관계를 이용해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관리이다.
예방적 관리는 수종 구성과 생육환경을 개선해 병해충 발생 자체를 줄이는 관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병해충 제거, 중간기주 제거, 상처 소독, 전염원 제거처럼 발생원과 전염 경로를 직접 없애거나 차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방제의 범주로 본다. 이 선지는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제거와 위생 관리에 초점이 있으므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대량으로 하기 어렵고, 소규모로 유효하다"이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해 비교적 넓은 면적에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량 방제에 널리 이용된다. 올바르게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는 방법은 화학적 방제이며, 넓은 면적에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약해, 저항성, 환경오염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다.
③ O: 해충을 먹는 조류, 포유류, 곤충 등을 활용하는 것은 천적에 의한 생물적 방제이다. 먹이사슬 관계를 이용해 해충 개체수를 억제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옳다.
④ O: 단순림은 특정 병해충이 번지기 쉬우므로 여러 수종을 식재해 식재 구조를 다양하게 하면 병해충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물의 건전성과 군집 안정성을 높여 병해충을 예방하는 방향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한다"는 앞부분이 맞아서 그대로 정답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함정은 방제 규모와 적용성 설명에 있으며, 화학적 방제의 장단점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 오답의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병해충 관리 문제는 먼저 수단의 성격부터 구분하면 된다. 직접 제거와 차단이면 물리적 방제, 약제를 쓰면 화학적 방제, 천적을 쓰면 생물적 방제, 식재 구조와 생육환경을 개선하면 예방적 관리이다. 그다음 적용 범위와 부작용 설명이 그 방제법의 일반적 특징과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직접 없애면 물리, 약제를 쓰면 화학, 천적을 쓰면 생물, 수종 다양화는 예방이다.

NoteBase

문 12. 로마의 포럼(Forum)과 같은 광장의 원형이 된 그리스의 조경 공간은?

① Atrium

② Peristylium

③ Xystus

④ Agora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마의 포룸과 기능상 대응되는 그리스의 공공 광장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포룸은 로마 도시에서 정치, 상업, 사법 기능이 모이는 공공 광장이다.
아고라는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의 집회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 광장으로 포룸과 대응된다.
아트리움은 로마 주택 중심부의 실내 중정 공간이다.
페리스틸리움은 기둥이 둘러싼 중정 또는 정원 공간이다.
크시스투스는 체육시설이나 정원에 딸린 산책로 또는 주랑 성격의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Atrium은 로마 주택 내부의 중심 공간이므로 도시의 공공 광장과 성격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공공 광장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주거 공간 용어이고, 포룸과 같은 그리스의 광장은 Agora이다.
② X: Peristylium은 기둥이 둘러싼 중정형 정원 공간이므로 시민 집회와 시장 기능을 가진 도시 광장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포룸과 같은 광장 개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주택이나 건축 내부의 중정 공간이고, 대응 개념은 Agora이다.
③ X: Xystus는 산책로나 주랑 성격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으므로 도시의 중심 공공 광장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포룸과 같은 광장이라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체육시설 또는 정원에 부속된 선형 공간으로 보고, 공공 광장 개념은 Agora로 본다.
④ O: Agora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공공 광장으로 시민의 집회, 토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로마의 Forum과 기능상 대응된다.

오답 포인트

주택 내부 중정 용어인 Atrium, Peristylium과 공공 광장 용어를 섞으면 오답이 된다. Xystus도 외부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광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시의 공적 중심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조경사 용어 문제는 먼저 도시의 공공 광장인지, 주택의 중정인지, 산책로나 주랑인지 공간의 기능부터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Forum은 로마 공공 광장, Agora는 그리스 공공 광장이며, Atrium과 Peristylium은 주택 중정 계열, Xystus는 산책로 계열이다.

NoteBase

문 13. 노란색 꽃이 피는 수목끼리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좀작살나무, 붉나무, 감나무, 황매화

② 팥배나무, 산사나무, 자목련, 죽단화

③ 죽단화, 산수유, 생강나무, 황매화

④ 중국단풍, 아까시나무, 산딸나무, 생강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별 대표 개화색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죽단화·산수유·생강나무·황매화는 노란 꽃이 피는 대표 수목이다.
반대로 줌작살나무는 연한 자주색 계열, 산사나무·팥배나무·산딸나무·아까시나무는 흰색 계열, 자목련은 자주색 계열 꽃이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줌작살나무는 노란 꽃이 아니라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따라서 이 묶음 전체를 노란 꽃 수목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줌작살나무를 노란 꽃 수목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줌작살나무 대신 산수유나 생강나무처럼 노란 꽃 수목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산사나무와 팥배나무는 흰색 꽃이 대표적이고, 자목련은 자주색 꽃이 대표적이다. 틀린 표현은 '이들을 노란 꽃 수목으로 묶은 점'이며, 올바르게는 노란 꽃 수목만 남기면 죽단화 정도만 해당한다.
③ O: 죽단화, 산수유, 생강나무, 황매화는 모두 노란 꽃이 피는 수목이다. 네 수종 모두 봄철 황색 계열 꽃으로 구분하는 대표 수종이므로 바른 배열이다.
④ X: 아까시나무와 산딸나무는 흰색 꽃이 대표적이다. 틀린 표현은 '아까시나무와 산딸나무를 노란 꽃 수목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이 자리에 산수유나 황매화 같은 노란 꽃 수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포인트

오답은 한두 종만 노란 꽃 수목을 섞어 전체가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점에 있다. 특히 죽단화, 황매화, 생강나무처럼 노란 꽃이 분명한 수종이 일부 들어 있으면 나머지 흰색·자주색 개화 수종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 나열형 문제는 각 수종의 대표 꽃색을 한 종씩 즉시 대조하면 된다. 보기 안에 흰색이나 자주색 개화 수종이 하나라도 섞이면 노란 꽃 수목 배열로는 탈락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죽단화·산수유·생강나무·황매화는 노란 꽃 4종 묶음이다.

NoteBase

문 14. 조경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환경흙포장으로는 마사토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 등이 있다.

② 조경일체형포장으로는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호박돌포장 등이 있다.

③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에서 건식공법은 2 ~ 7일의 양생 기간이 지난 후, 습식공법은 다짐 후 2 ~ 3시간 안에 사용이 가능하다.

④ 마사토(화강풍화토)포장은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 4체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기에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포장의 분류와 혼합토·경화토포장의 건식·습식 공법별 시간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친환경흙포장은 흙을 기본 소재로 한 포장으로 마사토포장, 혼합토포장, 경화토포장 등이 대표적이다.
조경일체형포장은 자연석·석재 단위재를 바탕층과 결합해 하나의 면처럼 마감하는 계열로, 이 문제의 분류에서는 사고석포장·석재타일포장·호박돌포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혼합토·경화토포장은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나뉜다. 습식공법은 재료에 물을 섞어 반죽 상태로 포설·다짐하므로 굳는 데 시간이 걸려 2~7일 정도 양생한 뒤 사용하고, 건식공법은 건비빔 상태로 포설·다짐한 뒤 살수하므로 다짐 후 2~3시간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화강풍화토로, 적정 입도와 청결도가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친환경흙포장에는 마사토포장, 혼합토포장, 경화토포장 등이 포함된다. 흙을 기본 재료로 하면서 자연스러운 경관과 투수성·친환경성을 살리는 계열이라는 점이 맞다.
② O: 이 문제의 조경포장 분류에서는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호박돌포장 등을 조경일체형포장으로 본다. 자연석·석재 단위재를 바탕층과 결합해 하나의 면처럼 일체감 있게 마감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계열로 묶는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③ X: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물을 섞어 반죽 상태로 시공하는 습식공법은 굳는 시간이 필요해 2~7일 양생한 뒤 사용하고, 건비빔 후 다짐·살수하는 건식공법은 다짐 후 2~3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건식공법에 2~7일 양생을, 습식공법에 2~3시간 사용을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O: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화강풍화토를 말하며, No.4체를 통과하는 입도를 갖추고 먼지·점토·유기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재료의 청결도와 입도 조건을 설명한 선지이므로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의 시간 조건을 맞바꿔 놓은 데 있다. 물을 섞는 습식공법일수록 양생 시간이 길어 며칠이 걸리고, 물을 덜 쓰는 건식공법일수록 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로 대응시키면 뒤바뀐 서술을 잡아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장 문제는 먼저 포장 종류의 분류를 확인하고, 공법이 나오면 물을 많이 쓰는 습식일수록 양생이 오래 걸리고 건식일수록 빨리 사용 가능하다는 원리로 시간 조건을 대응시킨다. 건식과 습식에 붙은 시간이 반대로 배치되어 있으면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혼합토·경화토포장은 습식공법이 2~7일 양생, 건식공법이 다짐 후 2~3시간 사용으로 외운다.

NoteBase

문 15. 수종과 과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Stewartia pseudocamellia - 차나무과
② Magnolia grandiflora - 장미과
③ Catalpa ovata - 능소화과
④ Lindera erythrocarpa - 녹나무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종의 학명과 소속 과명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류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식물 분류에서 과명은 속과 종의 상위 분류이므로, 학명 앞부분의 속명을 기준으로 소속 과를 판단할 수 있다.
Stewartia pseudocamellia는 Stewartia속으로 차나무과에 속한다.
Magnolia grandiflora는 Magnolia속으로 목련과에 속한다.
Catalpa ovata는 Catalpa속으로 능소화과에 속한다.
Lindera erythrocarpa는 Lindera속으로 녹나무과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Stewartia pseudocamellia는 노각나무로 차나무과 식물이므로 연결이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Magnolia grandiflora - 장미과"이다.
Magnolia grandiflora는 태산목으로 목련과 식물이므로 올바르게는 "Magnolia grandiflora - 목련과"이다.

③ O
Catalpa ovata는 개오동으로 능소화과 식물이므로 연결이 옳다.

④ O
Lindera erythrocarpa는 비목나무로 녹나무과 식물이므로 연결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꽃이 크고 화려하다는 인상 때문에 장미과와 혼동하기 쉽지만, 핵심은 꽃의 인상이 아니라 속명이다.
Magnolia라는 속명 자체가 목련과 분류를 가리키므로 장미과로 연결하면 틀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수종의 한글명보다 속명을 먼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Magnolia는 목련과, Catalpa는 능소화과, Lindera는 녹나무과, Stewartia는 차나무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Magnolia는 목련과, Catalpa는 능소화과, Lindera는 녹나무과, Stewartia는 차나무과이다.

NoteBase

문 16. 가해습성에 따른 일반 수목해충분류와 해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식엽성 해충 - 거품벌레, 선녀벌레

② 천공성 해충 - 면충, 혹파리

③ 흡즙성 해충 - 거위벌레, 잎벌레

④ 종실 해충 - 밤송이진딧물, 도토리바구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해충을 가해 부위와 가해 방식에 따라 식엽성, 흡즙성, 천공성, 종실해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식엽성 해충은 잎을 갉아 먹어 잎 조직의 결손을 만드는 해충이다.
흡즙성 해충은 식물체를 찔러 수액을 빨아 먹는 해충이다.
천공성 해충은 줄기나 가지, 목질부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이다.
종실해충은 종자, 열매, 견과 등 종실 부위를 직접 가해하는 해충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식엽성 해충-거품벌레, 선녀벌레'이다. 거품벌레와 선녀벌레는 잎을 씹어 먹기보다 식물체를 찔러 수액을 빨아 먹는 흡즙성 해충이다. 올바르게는 '흡즙성 해충-거품벌레, 선녀벌레'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천공성 해충-면충, 혹파리'이다. 면충은 대표적인 흡즙성 해충이고, 혹파리는 충영을 만들 수는 있어도 줄기나 목질부를 뚫는 전형적 천공성 해충으로 보지 않는다. 올바른 천공성 해충의 예는 하늘소류나 나무좀류처럼 내부를 파고드는 해충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흡즙성 해충-거위벌레, 잎벌레'이다. 거위벌레와 잎벌레는 잎을 직접 갉아 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올바르게는 '식엽성 해충-거위벌레, 잎벌레'이다.
4번 O. 밤송이진딧물과 도토리바구미는 종실 부위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묶인다. 밤송이진딧물은 입틀만 보면 흡즙성이지만 일반 수목해충 분류에서는 밤송이 피해 때문에 종실해충으로 다루고, 도토리바구미도 도토리를 가해하므로 연결이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해충의 입틀과 피해 부위를 섞어 보게 만든 점이다. ①과 ③은 식엽성과 흡즙성을 뒤바꾸었고, ②는 천공성의 핵심인 '줄기나 목질부 내부를 뚫어 가해한다'는 기준을 흐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충 이름이 나오면 먼저 잎을 씹는지, 수액을 빠는지, 줄기 내부를 파고드는지, 종실을 해치는지를 피해 양상으로 판단한다. 예시 곤충이 직접 가해하는 부위만 정확히 잡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식엽성은 잎을 먹고, 흡즙성은 수액을 빨고, 천공성은 줄기를 뚫고, 종실해충은 열매와 종자를 해친다.

NoteBase

문 17. 계절별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봄에 꽃피는 진달래나 철쭉류, 목련류, 동백나무 등의 화목류는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② 여름철에는 수목의 생장이 활발하고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가 나오게 되며,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강전정을 해야 한다.

③ 가을에 강전정을 하게 되면 다음 해를 위한 눈이 움직여 허약한 가지의 자람으로 동해를 입어 고사하거나 수세가 약화된다.

④ 겨울에는 수목이 휴면하고 있어 수형을 다듬기 위한 강전정을 실시하기 용이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절별 전정의 원칙, 특히 개화목의 전정 시기와 여름·가을·겨울 전정의 강약 조절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봄꽃나무의 전정은 꽃이 진 직후에 하여 다음 해 꽃눈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름 전정은 수형 정리와 도장지 제거 중심의 약전정이 원칙이며, 생육기 강전정은 수세와 상처 회복에 불리하다.
가을 강전정은 새눈과 연약한 새가지를 자극해 동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겨울 전정은 휴면기 전정으로 수형 조정이나 강전정을 비교적 시행하기 쉬운 시기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진달래, 철쭉, 목련, 동백 같은 봄 개화 화목류는 전년도에 형성된 꽃눈으로 피는 경우가 많아 꽃이 진 직후 전정하는 것이 맞다. 늦게 전정하면 다음 해 꽃눈을 잘라 꽃 수가 줄어들 수 있다.
2번 X: 틀린 부분은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강전정을 해야 한다"이다. 여름철에는 생장이 왕성해 도장지 정리나 수형 교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전정보다 약전정이나 가벼운 정지·전정이 원칙이다. 올바르게는 "여름철에는 도장지 제거와 수형 정리를 위한 가벼운 전정을 한다"이다.
3번 O: 가을에 강전정을 하면 휴면 전 새눈이 움직여 연약한 가지가 다시 자랄 수 있고, 이 가지가 충분히 목질화되지 못하면 동해로 고사하거나 수세가 약해질 수 있다.
4번 O: 겨울은 수목의 휴면기로 잎이 떨어져 골격이 잘 보이고 생리 활동도 둔하므로 수형을 다듬는 강전정을 시행하기 쉬운 시기이다.

오답 포인트

여름에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가 많이 나오므로 전정을 세게 해야 한다고 연결하면 오답이 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전정이 필요하다"와 "강전정을 해야 한다"를 같은 뜻처럼 섞어 놓은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절별 전정 문제는 먼저 그 시기가 생육기인지 휴면기인지 구분한 뒤, 생육기에는 약전정 중심인지, 휴면기에는 강전정이 가능한지 판단하면 정리가 된다. 봄꽃나무는 꽃이 진 직후, 여름은 가벼운 정리, 가을 강전정은 주의, 겨울은 휴면기 전정이라는 축으로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봄꽃은 꽃 진 뒤, 여름은 약하게, 가을 강전정은 동해 주의, 겨울은 휴면기 전정이다.

NoteBase

문 18. 전라남도 담양군에 소재한 소쇄원(瀟灑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로는 광풍각과 제월당이 있다.

② 정원 북쪽 장원봉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임천을 주된 경관 자원으로 활용한 독창적 고산수정원이다.

③ 소쇄원 48영은 오언절구의 시로 주요 건물, 구조물, 지형, 식생 등의 구성요소와 그 사용모습을 그리고 있다.

④ 작정자는 양산보이며 낙향해 은일생활을 하던 시기에 조영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쇄원의 조영 주체, 공간 구성, 정원 유형, 그리고 「소쇄원 48영」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쇄원은 양산보가 조성한 조선 중기 별서정원으로, 실제 흐르는 계류(임천)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인 비대칭 산수원림이다.
「소쇄원 48영」은 김인후가 지은 오언절구 48수로, 소쇄원의 경물과 공간 사용 모습을 전하는 핵심 자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광풍각과 제월당은 소쇄원을 대표하는 중심 건물이다. 실제로 소쇄원은 제월당구역과 광풍각구역으로 구분되므로 이 설명은 맞다.

② X
결정적 오류는 소쇄원을 "고산수정원"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고산수(枯山水, 가레산스이)정원은 물을 전혀 쓰지 않고 돌과 모래로 물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일본식 정원 형식이다. 반면 소쇄원은 정원 안으로 실제 계류(임천)를 끌어들여 흐르는 물을 주된 경관 자원으로 삼은 계류 중심의 별서정원이다. 선지 스스로 "흘러내리는 임천을 주된 경관 자원으로 활용"했다고 서술하면서 정작 물이 없는 고산수정원이라 규정한 것은 서로 모순되므로 옳지 않다. 소쇄원은 자연 계류를 살린 비대칭 산수원림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③ O
소쇄원 48영은 김인후가 지은 오언절구 48수이다. 이 연작시는 소쇄원의 주요 건물, 구조물, 지형, 식생과 그 공간에서의 감상 및 사용 모습을 전하는 자료이므로 옳다.

④ O
조영자는 양산보이다. 양산보는 조광조가 유배된 뒤 세속의 뜻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일생활을 하던 시기에 소쇄원을 조성하였으므로 이 설명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장원봉·임천·고산수정원처럼 그럴듯한 용어를 한 문장에 묶어 맞는 설명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결정적 오류는 "고산수정원"으로, 이는 물 없이 돌과 모래로 수경을 표현하는 일본식 정원 형식이어서 실제 계류를 끌어들인 소쇄원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소쇄원의 핵심은 계류 중심의 공간 구성과 비대칭 산수원림이라는 성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문제는 먼저 조영자와 대표 건물, 다음으로 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조, 마지막으로 정원 유형어를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우리 전통 별서정원에 일본식 정원 유형어(고산수 등)가 붙으면 오답 신호이다. 소쇄원은 계류 중심, 광풍각·제월당, 양산보라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은 양산보의 별서정원, 광풍각·제월당의 원림, 계류 중심의 비대칭 산수원림이다.

NoteBase

문 19. 경관평가 방법에서 연구자와 주요 연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린치(Lynch) - 도시이미지 연구

② 할프린(Halprin) - 모테이션 기호(motation symbols) 개발

③ 리튼(Litton) - 경관훼손의 가능성 연구

④ 스타이니츠(Steinitz) - 도면결합법 연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평가 분야의 대표 연구자와 핵심 연구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린치(Lynch): 도시이미지 연구 - 도시를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자이다.
할프린(Halprin): 모테이션 기호 - 공간 속 인간의 움직임과 행태를 기록하고 읽는 기호체계를 발전시킨 연구자이다.
리튼(Litton): 경관훼손의 가능성 연구 - 개발이 경관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흡수되는지를 평가하는 시각적 수용능력 논의와 연결된다.
스타이니츠(Steinitz): 경관계획의 체계화 - 경관 분석과 계획 과정을 구조화한 연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도면결합법 자체의 대표 연결 인물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1번 O: 린치는 도시이미지 연구로 대표된다. 『The Image of the City』에서 길, 경계, 지구, 결절점,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의 가독성과 이미지 형성을 설명했으므로 연결이 맞다.
2번 O: 할프린은 모테이션 기호와 연결된다. 모테이션은 인간의 동선과 행위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이므로 할프린의 연구 방향과 일치한다.
3번 O: 리튼은 경관훼손의 가능성, 즉 개발행위가 경관에 얼마나 드러나고 흡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시각적 흡수능력 개념과 맞닿아 있으므로 연결이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스타이니츠 - 도면결합법'이라는 연결이다. 도면결합법은 여러 장의 환경 도면을 중첩하여 적지를 찾는 방식으로 맥하그(McHarg)와 연결하는 것이 맞다. 스타이니츠로 고치려면 경관계획의 체계화나 지리정보 기반 경관분석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스타이니츠와 맥하그는 모두 경관계획 분야 인물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도면결합법이라는 대표 키워드는 맥하그 쪽에 붙고, 스타이니츠는 계획 과정의 구조화와 분석 틀 쪽에 더 가깝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는 이름만 외우지 말고 인물명과 대표 키워드를 한 쌍으로 묶어 판단한다. 린치는 도시이미지, 할프린은 모테이션, 리튼은 시각적 흡수능력, 맥하그는 도면결합법으로 먼저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린치=도시이미지, 할프린=모테이션, 리튼=시각적 흡수능력, 맥하그=도면결합법이다.

NoteBase

문 20. 돌재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잡석(雜石)은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가 되는 돌이다.

② 전석(轉石)은 잡석을 지름 0.5~10cm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로, 콘크리트용 골재 및 기초다짐용재로 사용되는 돌이다.

③ 조약돌(栗石)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cm 정도의 계란형 돌이다.

④ 야면석(野面石)은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돌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돌재료의 분류별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잡석: 지름 $10 \sim 30cm$ 정도의 크고 작은 알이 고루 섞인,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이다.
깬잡석: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 전면의 변 평균 길이가 뒷길이의 약 2/3인 돌이다.
전석: 1개의 크기가 대체로 $0.5m^3$ 내외인 정형화되지 않은 큰 석괴이다.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 \sim 20cm$ 정도의 계란형 돌이다.
야면석: 천연석의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공사용으로 쓰는 비교적 큰 석괴이다.
사석: 막 깬 돌 가운데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이다.
부순돌: 잡석을 지름 $0.5 \sim 10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로, 콘크리트용 골재나 기초다짐용 재료로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문장의 핵심 표현인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과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은 잡석이 아니라 깬잡석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잡석'이다. 올바르게는 '깬잡석은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 전면의 변 평균 길이가 뒷길이의 약 2/3이다.'가 된다.

② X
'잡석을 지름 0.5 ~ 10cm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이며 '콘크리트용 골재 및 기초다짐용재로 사용'되는 것은 전석이 아니라 부순돌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전석'이다. 올바르게는 '부순돌은 잡석을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이다.'가 된다.

③ O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이고, 지름 10 ~ 20cm 정도의 계란형 돌이라는 설명이 맞다. 조약돌의 형상과 크기 기준을 정확히 서술한 선택지이다.

④ X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돌'은 야면석이 아니라 사석의 설명이다.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올바르게는 '사석은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이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재료 이름과 정의를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①은 잡석과 깬잡석을, ②는 전석과 부순돌을, ④는 야면석과 사석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용어의 한 줄 정의를 외우지 않으면 모두 그럴듯하게 보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돌의 구별 기준이 크기인지, 형상인지, 가공 여부인지, 용도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0.5m^3 내외의 큰 석괴는 전석', '10 ~ 20cm 계란형 천연석은 조약돌', '표면 미가공 천연석은 야면석', '유수에 견디는 큰 돌은 사석'처럼 핵심 표지를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약돌은 계란형, 전석은 큰 석괴, 야면석은 미가공 표면, 사석은 유수 저항용 돌이다.

NoteBase